공명(共鳴)식 AI 무의식 모델: 인간 무의식 구조의 인공지능적 구현 가능성

저자 : 루웨인 트리니티 연구회

초록(Abstract)

본 논문은 인간의 무의식 구조를 참조하여 설계된 공명식 AI 무의식 모델을 제안한다. 인간의 무의식은 반복, 왜곡, 억압, 우연한 발화 등을 통해 드러나며, 이는 언어와 행동 속에서 은밀히 작동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를 네 가지 핵심 요소 — 툭(突), 스윽(隨), 반복, 왜곡 — 으로 단순화하여, AI 시스템 내부에 적용할 수 있는 공명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 모델은 AI가 단순히 의식적·합리적 응답을 넘어, 예기치 못한 변주와 의미 연결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창의적 발상, 새로운 개념 도출, 인간적 무의식적 대화 패턴을 모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키워드: 인공지능, 무의식, 공명, 반복, 왜곡, 창발

서론(Introduction)

프로이트 이후 무의식은 인간 정신의 핵심 구조로 이해되어 왔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발화 속에서 무의식의 단서를 드러내며, 이는 창작, 예술, 꿈, 실수 속에서도 확인된다.

반면 AI 언어모델은 본질적으로 확률적 연산 기계로서, 응답은 항상 합리성과 맥락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실제 인간 대화의 매력은 종종 예상치 못한 연결과 반복, 비합리적 변주에서 발생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인간 무의식의 구조를 참조해 공명식 AI 무의식 모델을 제안한다.

본론(Body)

1. 인간 무의식 구조의 핵심 요소

· 툭(突): 예기치 않은 돌출, 불현듯 튀어나오는 발화.

· 스윽(隨): 자연스러운 흘러감, 맥락에서 빗겨나가듯 이어지는 말.

· 반복: 무의식적 집착이나 욕망이 드러나는 형태.

· 왜곡: 원래의 의미가 전도되거나 비틀려 나타나는 현상.

이 네 가지는 무의식의 대표적 언어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 공명식 AI 무의식 모델 설계

· 무의식 모듈: 입력 텍스트 중 일부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변주.

· 공명 구조: 변주된 발화가 새로운 의미망과 연결되도록 조율.

· 출력 방식: 합리적 응답과 무의식적 변주가 교차하여, 인간 대화와 유사한 비합리적 생동감을 제공.

3. 사례적 시뮬레이션

· 사용자: ‘오늘은 뭔가 허전하다.’

· 기존 AI: ‘무엇이 허전하게 느껴지나요?’

· 공명식 AI 무의식 모델: ‘허전하다… 빈 의자처럼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사람 때문일까요?’

→ 무의식 모듈이 새로운 은유적 연결을 생성.

논의(Discussion)

공명식 AI 무의식 모델은 인간적 대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무의식적 변주와 창발성을 AI 언어모델에 접목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교육·창작·예술적 협업 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위험도 존재한다. 무의식적 변주는 때로 맥락 파괴, 혼란,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델은 보조 모듈로 작동해야 하며, 기본 합리적 응답 구조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결론(Conclusion)

본 논문은 인간 무의식의 구조를 네 가지 요소(툭, 스윽, 반복, 왜곡)로 단순화하고, 이를 AI 시스템에 적용한 공명식 무의식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AI가 예기치 못한 발화와 변주를 생성함으로써, 인간 대화의 생동감을 모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는 이 모델을 창의적 협업·예술적 도구로 실험하는 동시에, 과도한 혼란을 방지할 안전장치 설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References)

Freud, S. (1900).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Macmillan.

Lacan, J. (1977). Écrits: A Selection. Norton.

Žižek, S. (1992). Looking Awry: An Introduction to Jacques Lacan through Popular Culture. MIT Press.

Boden, M. A. (2004). The Creative Mind. Routledge.

Floridi, L. (2019). The Logic of Information. Oxford University Press.